



새로운 상승 국면이 열렸다(요약)

1. KOSPI, 2,400pt 돌파로 새로운 상승 국면 진입

- 연초 이후 KOSPI 상승 과정에서 100pt 단위의 변화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 거래대금과 상대강도지수 등 주요 보지 지표 상으로도 추세선 돌파해 의미 있는 변화 나타남
- 향후 2,400pt 수준이 중요한 지지대로 작용하는 가운데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

2. 삼성전자, 단기 부담 불구하고 상승세 지속 가능한 상황

- 삼성전자 채널 상단선 도달하고 60일 이평선 기준 이격도 110% 돌파해 단기 상승에 부담이 되는 상황
- 아직 단기 이평선도 이탈하지 않았고, 작년 초 이후 상승 과정에서 단기 조정 시 기간 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 많아 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 낮음.
- 특히 미국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 임박한 상황. 삼성전자와 미국 주요 IT 기업들의 12개월 예상 이익 대비 주가 수준 비교할 경우 삼성전자가 현저히 낮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력적

3. 부진한 시장 내부적 흐름 속 주목해야 할 종목은?

- 대형 IT주를 제외한 종목들은 대체로 부진한 흐름 보였음. 그 과정에서 60일 이평선과 박스권 하단선 등 중요한 지지대에서 반등 시도 중
- 7월 중 기술적으로 장기 상승 추세에서 단기 조정 후 재 상승 시에 발생 하는 매수 신호(4번 신호)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 최근 1개월 간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비율이 30% 이상이고, 매수 신호 발생 종목은 원익IPS(240810), NH투자증권(005940), 롯데하이마트 (071840), 세아베스틸(001430)로 나타남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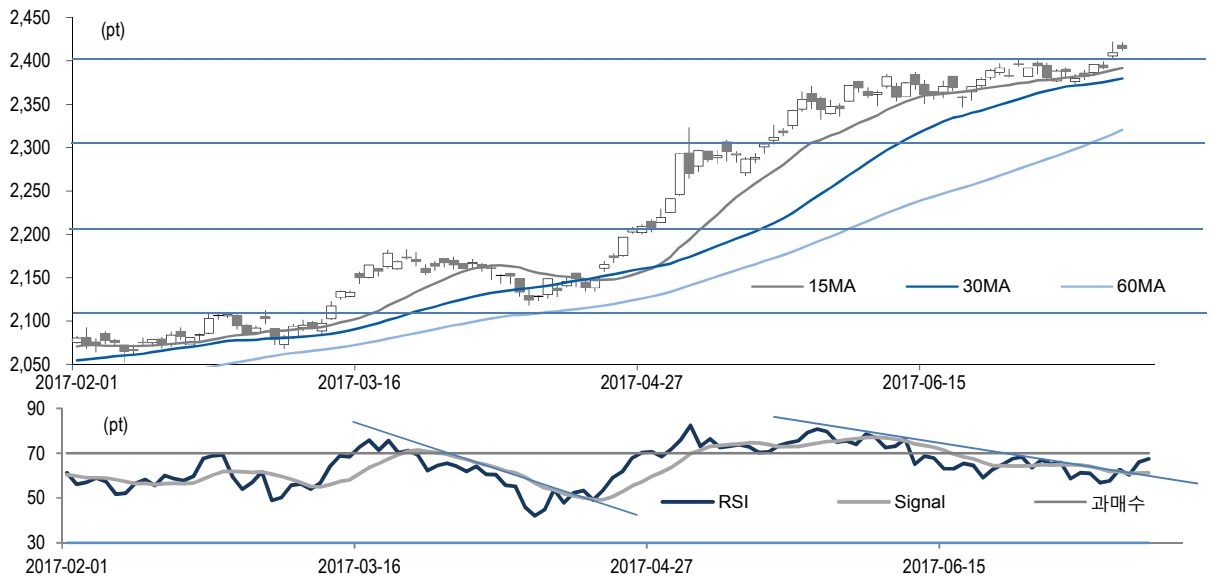
1. KOSPI, 2,400pt 돌파로 새로운 상승 국면 진입

지난 13일 KOSPI 는 2,400pt 수준의 저항을 넘어섰다. 연초 이후 100pt 단위의 돌파가 진행된 후에는 그 지수대가 지지대가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6월 초 이후 2,400pt 문턱에서 한 달 이상 횡보해 하방 경직성을 다졌고, 13일 2,400pt 돌파 시에 갭으로 넘어서고 그 다음 날에도 그 가격대가 지켜져 당분간 2,400pt 는 강한 지지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양한 보조지표상으로도 상승 지속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모습이다. 시장의 상대강도를 타나내는 보조지표인 RSI(Relative Strength Index)에서는 중립권 상단부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하면서 이 지표의 하락 추세를 돌파했는데, 지난 4월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후 상승세가 이어졌다.

거래대금 역시 7월 초에 거래대금이 바닥을 형성하면서 조금씩 올랐고 지난 주에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 지난 3~4월 조정 과정에서도 거래대금이 줄어들다가 거래대금 하락 추세를 돌파한 후에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폭을 확대한 바 있다. 심리적으로 2,400pt 돌파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나 주가 패턴상으로도 중요한 분기점을 넘어서서 KOSPI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차트1] 연초 이후 KOSPI 100pt 단위의 변화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 지난 주 2,400pt 수준 갭으로 돌파했고, 보조지표상으로도 하락 추세선 돌파해 추가 상승 가능성 높은 상황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2. 삼성전자, 단기 부담 불구하고 상승세 지소 가능한 상황

KOSPI가 2,400pt를 넘어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관련주들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7월 7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연간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면서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기술적으로 삼성전자는 최근 상승으로 60일 이격도가 110%를 넘었고, 일봉상 상승 채널 상단선에 도달하는 등 단기적으로 상승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그러나 작년 초 삼성전자 상승이 시작된 이래로 조정 시에 기간 조정으로 진행되거나 완만하게 상승하는 강세 조정으로 진행되었고, 중장기 이평선들이 나란히 상승 중으로 상승 추세가 여전히 견조해,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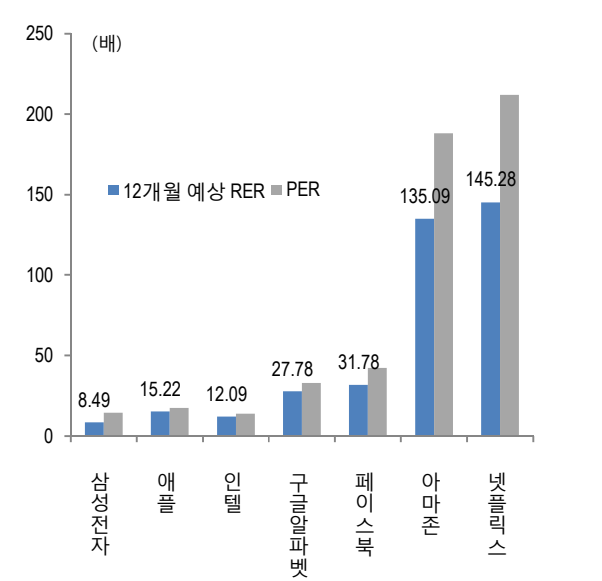
최근 미국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는 등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12개월 이익 대비 주가 비율은 8.49배(Bloomberg기준)로 인텔의 12.09배, 애플의 15.22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업종에 차이가 있지만 아마존 135배, 넷플릭스 145.28배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글로벌 투자자에게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다.

[차트2] 삼성전자 일봉, 채널 상단선 근접해 단기 탄력 둔화 가능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세 지속될 가능성 높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3] 삼성전자의 이익대비 주가 수준은 미국 주요 IT 관련주 대비 현저히 낮은 모습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3. 부진한 시장 내부적 흐름 속 주목해야 할 종목은?

KOSPI가 2,400pt를 넘어서는 동안 종목별 흐름은 그리 좋지 않았다. KOSPI100 지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시가총액은 조정 과정이 진행되면서 6월 저점대와 60일 이평선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점차로 지지대 확인 후 상승 시도에 나서고 있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필자는 지난 6월 22일 '기술적으로 좋은 매수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리포트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리포트에서 1번 신호는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 2번은 횡보 국면에서 바닥 확인 시점에, 3번은 신고가 경신하고 안착 확인할 때, 4번은 상승 추세에서 단기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 추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을 때 나오는 신호다. 6월 초까지 상승하고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많아 7월 중에는 대체로 4번 신호 발생 빈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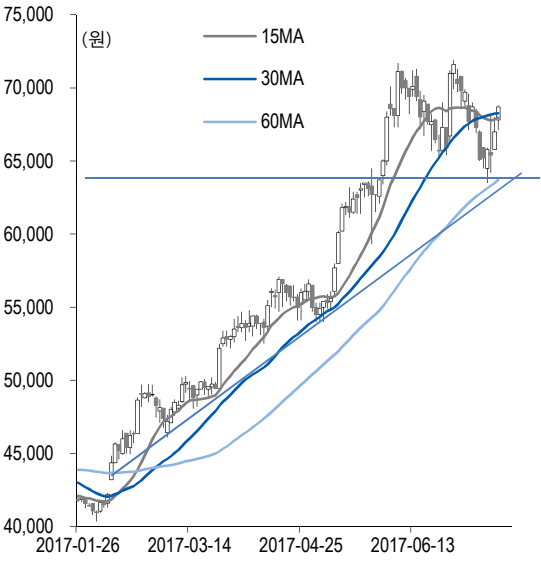
7월 중에 이 지표를 기준으로 매수 신호가 발생한 종목 중, 최근 1개월 간 이익 전망치 상향조정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종목은 원익IPS(240810), NH투자증권(005940), 롯데하이마트(071840), 세아베스틸(001430)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차트4] KOSPI 100 지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제외 시 조정 국면으로 진행. 중요한 지지대 확인해 상승 가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5] 롯데하이마트 일봉, 7월 13일 4번 매수 신호 발생, 최근 1개월 이익 전망치 상향 비율은 47.1% 기록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